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16)

‘로마서 강해 16 (유익의 목사)’의 내용을 정리 및 보충한 것입니다.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은 앞에서 설명했던 ‘대표성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¹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은 바로 **대표자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바로 **대표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자는 딱 2명 (아담과 그리스도) 뿐입니다. 둘째 아담이나 셋째 아담은 없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 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반발할 것입니다.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맛은 고사하고 선악과를 본 적도 없어서, 사과인지

¹ [모든 vs. 많은]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된 것은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① 아담의 불순종 결과와 달리,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모든’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②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십자가의 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의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님의 순종의 효과와 능력은 아담의 불순종 결과를 압도할 만큼 크고 충분합니다.

③ 명확히 기록하자면, 죄인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이고 의인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능력과 효과에 있어서 **아담의 불순종**에 미치지 못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둘 다 ‘많은’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복숭아인지도 모르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담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었다고 역사상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될 수 있는가? 숫자로 따지면 수백억 명이 넘을 텐데 말이다.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사실 이 ‘대표성 원리’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교리입니다. 조상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된다는 것이, DNA 같이 유전적인 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온전히 법률적이고 추상적인 것인지, 지난 2천년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설명들을 했지만, 어떤 설명도 만족할 만한 것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². 이 책에서 설명하려는 것 역시, ‘대표성의 원리가 왜 (혹은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가’ 즉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혜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هاب리 혜성’일 것입니다. 이것은 75~6년 주기로 지구에 가까이 오는데, 가장 최근에 근접한 것이 1986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구에서 이 혜성을 볼 수 있는 것은 2061년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혜성이 공포의 대상일 때가 많았습니다. 혜성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반란의 징조’라고 하여 정적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했으며, 기근이 들거나 재해가 닥친다고 생각을 하

² 이같이 이해하기 힘든 교리의 경우, 오히려 이단들이 명쾌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했습니다.³ 이렇게 혜성을 불길한 징조로 보던 시각은, 핼리의 과학적 관측으로 인해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나타났던 혜성의 년도를 조사해 보다가, 규칙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1456년/1531년/1607년/1682년, 즉 75~6년 주기로 같은 혜성이 나타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8~1759년 사이에 반드시 혜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1742년에 사망하였는데, 그가 예언한 정확한 시점에 정말로 혜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과학의 예언’대로 혜성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믿어왔던 미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758년, 최초로 ‘예고된’ 혜성이 나타났다. 이전의 혜성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인류에게 공포를 주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법칙의 지배를 받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다.

핼리 혜성은 75~76년의 매우 정확한 주기로 나타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주기성’을 알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

³ 혜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혜성이 하늘에 나타나자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가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혜성이 나타난 년도로 볼 때, 이 혜성은 핼리 혜성이 아니다)

람의 수명에 비해서 혜성의 주기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35세 정도에 불과했는데, 평생을 살아도 헬리 혜성을 한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고대의 사람들이 헬리 혜성의 주기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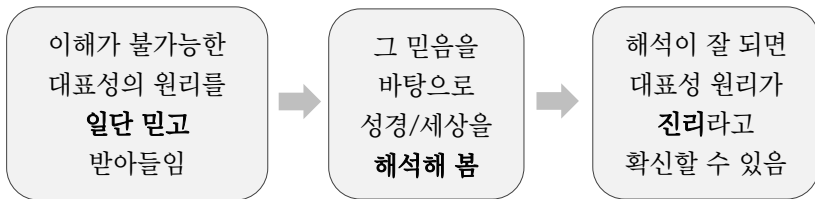
그런데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 원리’는 76년 주기를 훨씬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딱 두 번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류의 첫 탄생 때 한번(선악과), 그리고 2천년 전에 한번(십자가) 발생하였으니 그것을 눈으로 관찰한 사람 중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주변에 그런 현상을 자주 관찰할 수 있어서, 그 관찰의 결과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가, 먹은 후에야 죽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아담 뿐 아니라 그 자손들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을 눈으로 관찰 했어야만 ‘대표성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⁵, 그러지 못했으니 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딱 두 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법칙화’하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

⁴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기가 훨씬 더 긴 다른 혜성들도 종종 나타나니, 헬리 혜성만의 주기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헬리 혜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혜성 중에서 가장 주기가 짧은 편에 속합니다.)

⁵ 우리가 직접 관찰을 못했더라도, 아담의 직계 후손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도 남겼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기록을 남길 수 없을 만큼 고대사회였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대표성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모든 현상들이 잘 설명된다면, 우리는 그 ‘대표성 원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류의 죄, 죽음, 구원 등 성경과 우리 삶에 나타난 현상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대표성 원리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된다면, 대표성 원리가 진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⁶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과학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흔히 생각하기를, 과학과 믿음은 정반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학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논리와 합리성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논리의 학문인 과학마저도 먼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 이후에 논리적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본다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는 것을

⁶ <‘대표성 원리’를 믿음으로써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들의 예>

- 1) 안타깝게도, 뱃속의 태아들이나 영아들이 간혹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데,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던 태아/영아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왜 닥칠까요? 그것은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의인이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는데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표성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⁷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야, 그 다음에 수학적 계산도 가능해지고 논리적 설명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⁸ 이렇듯, 과학 역시 그 근본 바탕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도 ‘질량은 보존된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을 믿은 후**, 그 믿음을 바탕으로 **논리적 설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의 차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과학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대표성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전 과정에서 늘 그 믿음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⁷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fact)’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온대 지방에만 살았던 사람이 관찰한 결과는 ‘모든 곰은 회색이나 검은색’이라고 생각 것입니다.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회색 곰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일까요 믿음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가 관찰하지 못한 세계(북극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 법칙들이, 새로운 관찰이 이루어지면서 이전 법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과학도 엄연히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류인력법칙 역시, 우주 멀리 어딘가에 ‘서로 밀어내는 질량’을 발견한다면, 새로운 법칙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과학은 늘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⁸ 중력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자(重力子, graviton)등을 가정하기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히 중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일 graviton으로 중력이 충분히 설명 가능 해졌다고 가정해도, ‘그러면 그 graviton의 근원은 무엇이나’라고 또 묻는다면 역시 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 역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믿음을 전제로 하여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만류인력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만류인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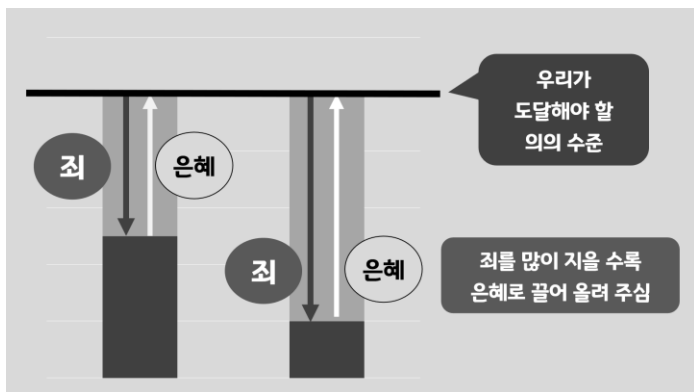
5:20a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율법이 들어왔다니!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란 말인가?” 물론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법률에 의해 ‘범죄’라고 규정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그저 ‘나쁜 것’일 뿐이지 ‘범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전에는 범죄라고 말할 수 없었던 나쁜 행동을 이제는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5:20b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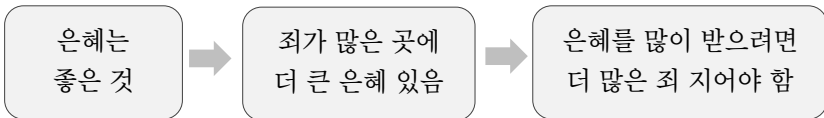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의의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은 ‘그러나’ 다음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도 마찬가지인데, 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나쁜 행위가 범죄로 인식되게 하기 위함이지만, ②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압도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⁹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1절 말씀은, 아래와 같은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궤변이 그렇듯이,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맞는 말 같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 받자고 죄를 일부러 많이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에

⁹ 위의 도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죄와 은혜를 같은 크기로 그렸으나, 실제로는 죄의 결과를 압도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죄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일부러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플라스틱이 없는 삶이란,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릇 하나의 가격이 (사기이든 유리이든) 매우 비쌌습니다. 서민들의 집에 그릇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서민들도 매우 싼 값에 쓸 수 있는 그릇이나 기타 여러가지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류의 삶을 평준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플라스틱의 엄청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인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플라스틱 생수 한병에만 해도 엄청난 수의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인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예와 마찬가지로, 5:15~6:2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한 사실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원리의 두 가지 측면〉

5:15a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이것은 부정적 측면으로써,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대표성 원리가 매우 불합리

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5:15b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 원리의 긍정적 측면인데, 부정적인 면을 압도하는 효과입니다.

이것을 통해 대표성 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두 가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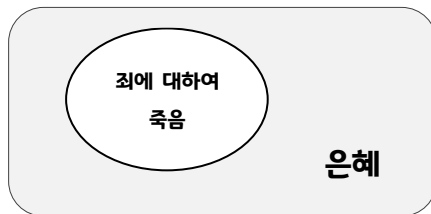
6:1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실 이 사고 방식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모든 것을 결국 은혜가 덮어줄 테니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은연중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강조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의 참담한 교회의 모습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에 대해서 동시에 강조해야 할 점은, ‘은혜’라는 것 안에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여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죄를 많이 지음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두 측면, ① ‘아무리 죄가 많아도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사실과 ②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된다’는 사실 중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후자라는 뜻입니다.

본 문서는 헤세드교회 웹사이트 <http://hsdch.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